



진주교 서울대학교구
복식동성당
 평화의 모후 & 14동직 지구 대표 본당

박규흠 베네딕도 지구장 신부님 | 황중호 베드로 평화송 신부님
 유인창 안사노 주임 신부님 | 임현호 도미니코 협성사목 신부님
 김한솔 도미니코 1부주임 신부님 | 정 엘리자 수녀님(원장)
 노동준 안토니오 2부주임 신부님 | 장 릴리안 수녀님(전교)
 서 다비드 수녀님(유치원)

성당 사무실 : 816-2961 평화의 쉼터(봉안시설) : 816-2919 명수유치원 : 816-2964 연령회 회장 : 010-9243-0588

♡ **합격을 기원합니다** ♡

강필준 마르코	고명서 세실리아	김기연 필립보네리	김소윤 아녜스
김아현	김정우 라우렌시오	김하윤	김희서 가브리엘라
도현우 사도요한	서윤우 노엘	송수현 시몬	신정원 미카엘라
양헌제 세례자요한	오채연	우현서	윤유승 라파엘
이도연 라파엘	이민우 안드레아	이유빈	이주현 가브리엘라
이지온 리나	이채민 스텔라	이호정 스텔라	장한결
정민선 임마누엘라	정서윤	정승환	조연우
조종윤 세례자요한	최윤서	황주협 바오로	그 외 모든 수험생들

“주님, 사랑하는 저희 자녀들이 주님과 함께 편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희망하는 대학교에 꼭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 수험생들을 위한 미사&수험생 자모 피정

- * 미사 : 11월 13일(수) 저녁 7시, 대성전
- * 피정 : 11월 14일(목) 오전 10시 미사 후

□ 여성 10구역 성지순례

- * 일시 : 11월 13일(수) 오전 9시
- * 장소 : 절두산 순교성지
- * 출발 : 푸르지오아파트 예가인 부동산 앞
- * 문의 : 여성구역장(010-7414-8891)

□ 회합과 모임 ※(대)-대성전지하, (교)-교육관

모임단체	일시	장소
남녀 4구역	11월 10일(일) 교중미사 후	(교)204호
남녀 7구역		(교)201호
남녀 8구역		(교)203호
남성 9구역		(대)3회합실
남성13구역		(대)5회합실
남성17구역		(교)302호
여성 9구역	11월 14일(목) 10시 미사 후	(교)207호
여성17구역	11월 15일(금) 10시 미사 후	(교)206호

□ 프락 타케오 마을의 어린이들을 도와주세요

대성전 1층 로비에서 기부와 후원을 받습니다.

□ 김수환 추기경님 15주년 추모 음악회

- * 일시 : 11월 11일(월), 저녁 7시 30분
- * 장소 : 주교좌 명동대성당 대성전
- 우측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하세요.
- 선착순 무료입장입니다.



관람신청링크


□ 오늘(11.10) 평신도 주일 2차 헌금 있습니다.

□ 서울대학교구 사무처공문(사무24-327-1097)

본당 사무직원 친절도 조사

찬미 예수님, 천주교 서울대학교구(사무처)입니다.
 본 조사는 신자님께서 소속 본당 [흑석동]의
 사무직원과의 만남을 통하여 느끼신 친절도 수준
 을 알고자 진행하는 조사입니다.
 응답 소요 시간은 약 3~5분 정도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사시기	2024년 10월 27일 ~ 11월 10일
조사방법	QR코드를 활용한 설문 참여
포상	전체 1위(1명) : 상금 500만원 지구별 1위(18명) : 상금 100만원



미 사 시 간 / 상 시 인 내

주일	토요일	일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15:00(유초등부)	06:00	오전 06:00	오전 06:00	오전 06:00	오전 06:00	오전 06:00	오전 06:00
	19:00(특전)	09: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중고등부 학생미사:소성전)	오전 06:00	오전 06:00	오전 06:00	오전 06:00	오전 06:00	오전 06:00
			오전 06:00	오전 06:00	오전 06:00	오전 06:00	오전 06:00	오전 06:00
			오전 06:00	오전 06:00	오전 06:00	오전 06:00	오전 06:00	오전 06:00
			오전 06:00	오전 06:00	오전 06:00	오전 06:00	오전 06:00	오전 06:00
			오전 06:00	오전 06:00	오전 06:00	오전 06:00	오전 06:00	오전 06:00

사무실 ☎ 816-2961 매주 월요일 휴무	유이새레	매월 첫째 토요일 16:00
팩스 ☎ 817-5933	주모미사	매월 둘째 토요일 10:00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식로13길 3(06910)	혼인면담	매월 둘째 토요일 16:00, 혼인 2개월 전 신청 요망(서류 접수)
https://bstsd.or.kr	미사지향	희망 일자 전날 17:00 마감 /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무료법률상담	성당 사무실로 전화신청(흑석동 교우限)

● **우리들의 징성 (10. 28 ~ 11. 03)**

연중 제31주일 헌금	7,768,650 원	감사헌금	김형길	이종목	조혜순
교 무 금	20,225,000 원				

금주 교무금 내신 분

강균민	김선주	김창용	박영희	양우권	윤석정	이선복	이철우	정원석	최선봉
강상목	김소은	김현옥	박우순	양유리	윤애리	이선숙	이한석	정운택	최영성
강심원	김영	김형길	박은정	양혜영	윤현자	이선정	이한호	정형식	최유진
강안순	김영미	김형배	박의부	엄영자	이강순	이성룡	이해선	정호영	최윤자
강일기	김영숙	김혜숙	박정순	여강은	이경순	이영재	이희승	정희철	최정숙
강지선	김예빈	김화정	박지현	염동권	이경애	이영희	임금자	조경환	최주환
강지호	김용건	김효중	박태훈	오세은	이경원	이옥순	임동열	조도선	최향규
강철수	김용식	문영자	박현정	오영희	이경자	이원주	임정재	조문화	추유식
곽성숙	김용준	문정식	방준하	오제욱	이계경	이윤정	임현성	조영옥	탁명남
권기문	김유석	박경애	배기문	우미선	이귀주	이의신	임화숙	조주연	하은주
권영교	김윤전	박경자	백미경	우혜진	이기정	이재찬	장필예	조현진	한남기
권희섭	김은경	박기호	변은구	원명숙	이덕재	이재현	전은주	조형원	한수진
김 강	김은영	박내룡	서병기	원용대	이동호	이정순	전찬석	조혜순	호리카와
김계원	김익환	박문희	서주원	원은영	이민정	이종목	전희숙	조혜순	홍대영
김길자	김일환	박민흠	설예자	유석윤	이병욱	이종숙	정경미	주구레	홍승옥
김만자	김임균	박성재	송희경	유성순	이보련	이종윤	정경하	진옥레	홍정숙
김명준	김재정	박성준	심규철	유정아	이복성	이주경	정덕인	최동배	화승주
김미성	김종해	박성희	안경자	유지영	이상로	이주은	정동근	최두림	황인식
김상금	김진형	박숙희	안규호	유진호	이상은	이주형	정병만	최미애	
김석남	김찬호	박승원	양승자	윤병민	이 선	이종식	정아람	최상훈	

[신앙단상] 내일의 신을 등반하는 법 - 김민주 에스디

첫째 아이의 이탈리아 초등학교 입학식에서 교장 선생님은 그림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15세기 안드레아 델 베로키오 공방(1470~1475)에서 그린 토비아와 천사 그림이었습니다. 그림 속에선 눈먼 아버지를 대신해 길을 떠나는 아들 토비아를 라파엘 대천사가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부모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세요. 천사는 소년을 밀지도 끌어당기지도 않습니다. 같이 걸어갑니다. 아래를 보세요. 자갈밭입니다. 천사는 돌을 치워주지 않았습니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에게 돌을 만나게 해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직접 돌을 대면해야 합니다. 그들이 배우고 성숙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오늘의 돌들이 내일은 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산을 만날 때, 아이들은 등반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의 어려움을 치워주지 마세요. 아이들이 17세 정도가 되면 사춘기가 옵니다. 사춘기가 된 아이들은 문제가 닥치면 포기하고 외면하려 합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부모들은 실망하죠. 하지만 그건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탓입니다. 아이들의 돌을 빼앗아버렸기 때문에 아이들은 스스로 어려움을 대면하고 올바른 질문을 하고 자신에게 맞는 답을 찾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아이들에게 삶의 방식을 보여 준 적이 없습니다. 나 자신을 깊게 들여다보고 생각해야지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나를 알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이라는 여행을 통해 우리 자신을 알아가야 합니다. 질문은 중요합니다. 질문은 언제나 우리를 더욱 깊이 들어서도록 합니다. 위기는 아이들을 성장시킵니다. 아이들은 어려움과 함께 머무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아이들의 자갈을 빼앗으면 안 됩니다. 제발, 돌을 치워주지 마세요!”

부모가 되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자갈을 치우는 것보다 자갈을 치워주지 않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라는 것들요. 성경 속 길을 떠나는 토비아를 보고 우는 어머니 안나에게 아버지 토빗이 말합니다.

“그러자 토빗이 대답하였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는 건강한 몸으로 갔다가 건강한 몸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요. 이 아이가 건강한 몸으로 당신에게 돌아오는 날을 당신 눈으로 볼 것이요. 그러니 여보, 걱정하지 말고 이 사람들 때문에 염려도 하지 마시오. 선하신 천사께서 토비아와 함께 가실 터이니, 이 아이는 여행을 잘 마치고 건강한 몸으로 돌아올 것이요.’ 그러자 그 여자는 울음을 그쳤다.”(토빗 5,21-22; 6,1)



부모가 되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비록 자갈만 보일지라도 그 위를 걷는 걸음 곁에 천사가 손을 잡아주고 있다는 것들요. 오늘도 이 이탈리아 땅에서 어려움과 함께 머무는 법을 배우나갑니다.